

치어리딩의 올림픽 잠정종목 채택과 관련하여 한국 치어리딩 기술의 방향성

A Study of the Direction of Korean Cheerleading Technology in Sports cheerleading of the Olympic Games as a demonstration event

김종훈¹⁾

JONGHOON KIM¹

요 약

18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치어리딩은 현재 전세계 150개 국가가 즐기고 있는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이다. 치어리딩은 2013년 스포츠어코드를 통해 스포츠 경기의 서포트가 아닌 하나의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았으며, 2016년 12월 국제올림픽위원회를 통하여 올림픽 잠정종목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의 스포츠 치어리딩은 짧은 역사 속에서도 경험인구 확대, 치어리딩에 대한 수요증, 치어리딩에 대한 인식변화, 치어리딩 수준의 세계화 등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한국의 치어리딩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국내 치어리딩의 인기도에 치어리딩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수단이 부족하다. 공급수단에는 스포츠 치어리딩의 프로그램의 부재, 수준 높은 지도자의 부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치어리딩의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치어리딩이 스포츠 종목이라고 인지하는 사람은 드물다. 단체 및 국가의 운영자금 불안정 및 제도적 지원의 미비함도 문제점으로 지적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스포츠 치어리더들의 열정과 관심으로 성장과 발전이 꾸준히 지속되어 온 만큼, 앞으로는 체계적인 연구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국 치어리딩의 방향성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세계 치어리딩의 올림픽 정식 종목을 향한 노력에 발맞추어 한국 치어리딩 또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야 한다.

핵심어: 스포츠, 치어리딩, 올림픽, 올림픽종목

Abstract

Cheerleading began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880s. Now Cheerleading is one of the sports events enjoyed by 150 countries around the world. It was recognized as a sport through the Sports Accord in 2013 and was selected as an Olympic provisional event through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n December 2016. Sports cheerleading starts the Olympic Games as a demonstration event

1) Department Performing Arts Management , SangMyung Univ., Hongji-dong, Jongno-gu, Seoul, Korea
e-mail: ssyyb1@naver.com

Received(November 2.2017), Review (December 15.2017), Accepted(December 31.2017)

at the Summer Universiade in Taiwan in 2017. The International Cheer Union will continue its efforts to promote the Olympic Games as a recognised group of Olympic Committee members.

Sports cheerleading in Korea has achieved increased experience, increased demand, positive perception, and world-class globalization in short history. However, still Korea's cheerleading has a marginal limitation. Despite the soaring demand for cheerleading in Korea, demand for cheerleading is soaring, but supplies are lacking. The supply method includes the absence of a program of sports cheerleading and a shortage of high-level leaders. There are also many improvements in cheerleading awareness, but not many people perceive cheerleading as a sport. The lack of instability in the organization and the shortage of institution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s also pointed out to be a problem.

The passion and interest of Korean sports cheerleaders has continued to perpetuate growth and development. From now on, it will be necessary to plan the direction of Korean cheerleaders with systematic research and long-term plans.

Keyword:: sport, cheerleading, olympic, olympic sports

1. 서론

우리나라의 치어리딩은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중·고등학교에도 치어리딩 클럽이 생활체육으로서 운영 중에 있으며, 엘리트 스포츠로서 클럽 치어리딩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등 치어리딩이 보급화 되어가고 있다.

매년 세계 치어리딩 연맹(ICU)에서 주최하는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세계 올스타 치어리딩 대회까지 우리나라의 치어리딩팀이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으며, 매년 엘리트 클럽 치어리딩팀이 늘어나면서 한국 스포츠 치어리딩의 실력도 발전하고 있다. 댄스힙합 더블부문과 올스타 치어리딩 레벨6 혼성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하였으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스텐트 치어리딩으로 매년 참가하며 성적을 단계별로 올리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 치어리딩이 한국에서 시작 된지 10년 남짓 된 현재시점에서, 국내 치어리딩 분야에 필요한 제반 사항 및 한국 치어리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치어리딩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치어리딩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수요가 급증함에도 치어리딩을 보급화 할 수 있는 공급력이 부족하다보니 방향성과 발전성에 난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치어리딩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개선방향과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할 한국 치어리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 한다.

스포츠로 인정받은 치어리딩은 이제 더 이상 스포츠의 서포터가 아니다. 치어리딩 그 자체가 스포츠인 것이다. 올림픽 잠정종목으로 치어리딩이 채택된 만큼 세계적으로 치어리딩의 성장폭은 두터워 질 것이다. 치어리딩의 성장세와 발전 속도를 감안하여, 한국의 치어리딩이 보폭을 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연구 자료와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올림픽과 관련한 연구자료 및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치어리딩과 올림픽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치어리딩과 관련하여 국내 연구 자료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기에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하여 전 국가대표 선수 및 전 국가대표 감독의 기록과 경험을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가 진행된 전 국가대표 치어리딩 선수 및 감독은 댄스 치어리딩 종목과 스텐트 치어리딩 종목에서 활동한 자들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치어리딩은 대한체육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승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의 자격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전 국가대표 치어리딩 감독을 비롯하여 전 국가대표 치어리딩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방식은, 전화 인터뷰와 방문인터뷰를 동시에 채택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와 함께 대상자의 개인소장 기록들을 자료에 포함하여 참고하였다. 인터뷰를 통하여 연구에 허용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만 참고하였으나, 제한적 대상을 상대로 인터뷰가 진행되었기에 인터뷰 결과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치어리딩에 대한 국내연구가 부족한 만큼 한국 치어리딩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의 시도 및 개발이 필요하다.

3. 본론

3.1 치어리딩

치어리딩은 18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스포츠 종목으로 전 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즐기고 있다. 치어리딩은 사전적 의미와 부합되어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의미로 흔히 스

포츠 경기장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치어리딩 자체가 스포츠 종목이라기보다는 스포츠 종목을 보다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위한 수단 중 하나였던 것이다. 하지만 2013년 스포츠 어코드를 통해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치어리딩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스포츠 종목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치어리딩을 즐기는 전 세계의 많은 치어리더들 또한 스포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스포츠 어코드는 국제 스포츠협회들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올림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스포츠를 대표하고 있는 기구이다. 치어리딩이 스포츠를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즐기는 도구로 머물러 있었다면, 스포츠 어코드를 통해 치어리딩 그 자체만으로 스포츠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실제로 치어리딩이 스포츠로 인정받기까지는 세계 치어리딩 연맹(ICU)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또한 스포츠어코드를 통해 스포츠로 인정받은 치어리딩을 올림픽 종목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여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치어리딩 연맹(ICU)은 현재 전 세계 110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35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치어리딩 연맹(ICU)의 노력으로 실제 치어리딩은 2016년 1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의해 올림픽 잠정종목으로 선정되었다. 그 결과 FISU 유니버시아드 종목으로 선정되는 등 엘리트 스포츠로 급성장 하고 있다.

3.2 올림픽종목의 선정 및 평가기준과 치어리딩

올림픽의 모든 종목은 '최소한 해당올림픽대회 7년 전 에 올림픽대회 프로그램에 의해 채택되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14]는 규정에 따라 2020년의 올림픽 정식종목이 2013년에 IOC총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올림픽 위원회에 따르면, '최소한 75개국 4개 대륙에서 남성에 의해 널리 시행되고 있고, 동시에 최소한 40개국 3개 대륙 이상에서 여성에 의해 널리 실시되고 있는 종목이어야한다'[14]고 올림픽 종목선정을 제한하고 있다. 올림픽 종목진입까지 종목의 보급현황이 중요한 선결조건이 되는 것이다. 또한 8개 분야 39개의 기준, 74개 항목으로 세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의 많은 종목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올림픽정식종목이 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다. 올림픽 종목 및 세부종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아래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종목 및 세부종목에 대한 평가기준

[Table 1] Evaluation criteria for sports and disciplines

역사와 전통	
1. 스포츠와 IF의 역사	-스포츠의 역사와 발전 -IF의 권한 하에 개최된 국제경기 -국제 연맹 설립 일자
2. 올림픽 게임과 스포츠 경기의 올림픽 참가자 참여	-종목이나 스포츠가 올림픽 프로그램에 포함된 횟수 -각 종목별 종목별 종목 수(세계 선수권, 대학교 게임, 영연방 게임, 대륙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지중해 아시안 게임)
3. 제1회 세계 선수권 대회	-남녀 모두를 위한 훈련이나 스포츠 -남녀별로 각 종목별로 개최되는 세계 선수권 대회의 수
4. 세계 선수권 대회 결과	-선수권 대회 -세계 랭킹 16위까지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4위까지 올라 있는 목록
보편성	
5. 관계 국가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연방 정부 -국제 연맹 산하 국가 연맹의 목록 국가 올림픽 위원회에 상응하는 전국적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만이 고려
6. 올림픽 경기장에서의 국가별 행사 참가 자격 행사 참가자 참여	-자격 요건의 전체적인 절차 -NOC에 상응하는 국가별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만 고려 -국가별로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에 해당하는 국가별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해당
7. 세계 선수권 대회 및 또는 예선전에서의 국가별 참여	-지난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남자와 여자의 예선전에 참가한 국가 대표 인원 수 -전체 자격 요건 국가 올림픽 위원회에 상응하는 전국적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만이 고려
8.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 및 또는 예선전에서의 국가별 참여	-지난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남자와 여자의 예선전에 참가한 국가 대표 인원 수 -전체 자격 요건 국가 올림픽 위원회에 상응하는 전국적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만이 고려
9. 대륙 선수권 대회의 국가별 참여 참여 방안	-지난 대륙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국가 대표 팀의 수, 그리고 이 대회들의 해 -전체 자격 요건 국가 올림픽 위원회에 상응하는 전국적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만이 고려
10. 전국 선수권 대회 개최 국가 대표 선수 수	-전국 대회를 개최한 국가 대표 선수들의 수 -국가 올림픽 위원회에 상응하는 전국적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만이 고려
인기	
11. 올림픽 경기와 올림픽 경기 출전 예선전 참가자들의 참여	-올림픽 종목: 올림픽 경기 참가 선수들의 참가와 스포츠 세계 랭킹 간의 일관성 -최고의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연맹이 취한 조치들 -스포츠가 올림픽 프로그램에 포함된다면, 올림픽 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참여가 스포츠 세계 랭킹과 일치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최고의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맹의 준비

12. 올림픽 경기 관람객 수	-티켓의 판매 가능성 -매진비율
13. 세계 선수권 대회 참가자 수	-지난 4년간 남자와 여자를 위한 각 세계 선수권(또는 동등한 이벤트)에 대한 스펙 테이터를 포함 -지난 4년간 남자와 여자를 위한 각 세계 선수권(또는 동등한 이벤트)에서 판매된 티켓의 수
14. 올림픽 게임의 언론 매체 관심사	-올림픽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장에 할당된 미디어 위치의 수 -두개의 미디어 인증 요청과 마지막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부여된 미디어 인증의 수
15. 서면 보도	-정량적이고 질적인 데이터로 언론보도 -IOC가 요청한 연구를 통해 취합된 출판기사는 공인된 외부회사에 의해 운영 -세계선수권대회 출판기사수의 증가를 위한 방법론 제시
16. 올림픽 경기와 세계 선수권 대회의 텔레비전 방송 보도	-올림픽 기간 동안 TV방송 보도 정량적이고 질적인 데이터는 IOC가 요청한 연구를 통해 취합하여 외부 회사에 의해 운영 -올림픽과 두개의 세계 선수권 대회의 TV방송국(수 많은 나라들과 수 시간) 보도 운영에 대한 방법론 제시
17. 뉴 미디어	-공식 웹 사이트 생성 연도 -새로운 미디어(인터넷, 휴대 전화 등)를 통해 IF와 스포츠 홍보 수행 -올림픽 기간 동안 IOC공식 웹 사이트와 올림픽 조직 위원회 웹 사이트의 각 스포츠 페이지 방문 횟수
18. 스폰서 및 마케팅 프로그램	-주요 후원자 목록, IF에서 받은 혜택의 종류 스폰서쉽과 마케팅의 총 수익은 스폰서쉽, 면허증, 머천다이즈 등을 포함
19. 텔레비전 판권 판매	-남자와 여자를 대상으로 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개최된 세계 선수권 대회에 대한 TV저작권의 판매 수익금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나라들의 수와 목록을 차지한 나라들의 수와 목록
이미지, 환경개선	
20. 운동 선수 위원회	-IF운동 선수의 존재 여부 -IF운동 선수의 선거 절차 정의: IF팀의 글로벌 의사 결정권자가 글로벌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
21. 남녀 평등권	-세계 선수권 대회,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 올림픽 경기 예선전 참가자 수와 해당되는 경우 여자 대 여자 경기 참가자 간의 관계 -선출된 남녀 수의 비교
22.스포츠의 프레젠테이션	-경기의 결과가 심판의 선발 및 평가 과정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F가 취해 진 조치 -가장 흥미롭고 매력적인 방법으로 스포츠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들
23.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올림픽 경기에서 규율이나 스포츠의 존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대한 정책의 정책: 환경 프로그램과 실행 계획의 존재
선수	
24. 도핑 방지 정책	-모든 승인된 약물 검사 기관이 지난 2년간 실시한 시험 횟수 -분석 결과 수, 도핑 방지 규칙 위반 수, 제재를 초래한 도핑 방지 규칙 위반 수

발전	
25. 재정 상태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총 소득 및 지출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도출한 소득의 백분율.
26 전략 기획 과정	-전략 계획 수립 프로세스 -계획 수립 프로세스에 대한 요약.
27. 개발 프로그램 범위	-개발 프로그램의 존재여부 -개발 프로그램에 할당된 총 예산의 비율 -IFs 및 대륙 협회를 지원할 수 있는 재무 분배 시스템
비용	
28. 새로운 경쟁 업체 및 교육 인프라 비용	-올림픽 게임을 포함한 새로운 경쟁 및 훈련 인프라의 비용 -올림픽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기존의 장소와 기존의 개최지를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새로운 경쟁 업체들의 비용 -다른 스포츠와 장소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
29. 경기 및 훈련장에서의 장비와 관련된 비용	-올림픽 경기 동안에 경기와 훈련 장소에 필요한 모든 스포츠 관련 장비들 (예; 스포츠 관련 장비, 스코어 보드, 결과 시스템 등)
30. 경기 장소에서의 개인 스포츠/개인 기술 요구 사항과 관련된 비용	-각 특정 스포츠/스크립트 분야의 올림픽 경기장에서 필요한 기술 비용
31. 스포츠 또는 스포츠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 규율	-올림픽 경기 개최지 확보에 드는 비용과 복잡성
32. 텔레비전 생산의 비용과 복잡성	-올림픽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당 텔레비전 생산 비용과 복잡성
재원	
33. 재원	-전 세계 스포츠의 개발, 프로모션 및 이미지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출

출처:[14] 'Evaluation criteria for sports and disciplines' 를 번역

올림픽은 서방스포츠사상을 기둥으로 삼는 스포츠 경기로서 경쟁과 격려, 보다 빠르고 보다 높으며 보다 강함을 추구하고 있다. 올림픽종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스포츠 종목에 대한 국제성, 감수성, 가조작성, 안전성, 관람가치 등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또한 올림픽 경기에서의 경쟁성과 공정성이 실천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되는 가치이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올림픽 종목이 가능해지는 만큼, 치어리딩도 조건을 더욱 탄탄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올림픽 종목의 평가기준에 맞추어 치어리딩을 살펴보면, 세계 치어리딩 연맹(ICU)에 2017년 현재 5개 대륙의 110개국에 가입되어 있으며, 여성과 남성에 의해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스포츠 종목이다. 국제 올림픽 헌장의 '4대주의 남성중에 최소 40개 국가와 지역, 3대주의 여성 중에 광범위하게 보급된 스포츠종목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조건이 성립된다. 특히 남성의 참여보다 여성의 참여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다른 스포츠와의 차별성을 지닌다.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앞선 종목은 그리 많지 않다. 일반인들의 수준에서 떠올려 봤을 때 치어리딩을 수행하는 성별은 여성의 이미지가 먼저 떠올려지고, 치어리더 하면 여성의 이미지가 강하다. 올림픽의 종목으로서 여성의 참여도가 중요한 만큼, 치어리딩은 일단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쟁과 격려가 필요하고,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여 국제성과 감수성, 가조작성, 안전성, 관람가치가 필요한데, 경쟁과 국제성은 이미 세계선수권 대회, 유럽대회, 아시아대회 등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치어리딩 대회를 통해 입증될 수 있다. '치어리딩' 하면 사전적 의미로 먼저 떠오르는 '격려와 배려'의 의미는 부가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이미 치어리딩 종목 안에 녹아져 있다. 안정성에 대한 기준에는 엄격하게 나누어진 기술적 난도구분으로 선수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치어리딩은 스포츠로 인정받기 전까지 경기의 형태보다는 보고 즐기는 형태의 문화 예술적 장르에 가까웠다.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치어리더에 대한 관용구는 존재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관람 가치적 차원에서 치어리딩은 올림픽 종목선정조건에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치어리딩의 기술적 규정과 예술적 규정의 심사기준을 따져 보았을 때 감수성과 가조작성에 대한 요건도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해 볼 수 있으나, 가조작성에 대한 세부충족요건을 만족하는지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점종목에 대한 경쟁성과 공정성이 올림픽종목으로 진입하는데 중요한 요건이 되는 만큼 치어리딩의 세부적 종목구분과 심사규정 및 심사방법에 대한 검토 및 유연함이 필요하다. 치어리딩의 세부종목을 [표 2]로 정리하였다.

치어리딩은 체조를 기반으로 한 스텐트 치어리딩과 발레를 기초로 한 댄스 치어리딩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제대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 종목은 스텐트 치어리딩은 남녀혼성팀과 여성팀으로 성별이 구분되고, 기술난도에 따라 엘리트와 프리미어로 나뉜다. 또한 경기 참가 인원으로 세부종목이 구분되기도 한다. 댄스 치어리딩은 세부종목으로 재즈, 힙합, 펌으로 구분되며, 단체종목과 2인 종목으로 경기 참여인원에 따라 또 한번 구분된다. 댄스 치어리딩은 성별의 구분은 따로 나누진 않지만, 대부분 여성이 참가한다.

[표 2] 치어리딩 국제대회 세부종목 구분
[Table 2] Cheerleading International Competition Category classification

종목구분	세부종목	경기시간	경기인원	선수나이
Team Cheer	All girl Elite	2분 30초	8-24명	14세 이상
	여성팀 레벨5			
	Coed Elite			15세 이상
	남여혼성팀 레벨5			
스턴트치어 단체 종목	All girl Premier	2분 30초	8-24명	14세 이상
	여성팀 레벨6			
	Coed Premier			15세 이상
	남여혼성팀 레벨6			
Parter Stunt	All girl Group Stunt	1분 00초	5명	15세 이상
	여성팀 그룹스턴트			
	Coed Pater Stunt		2명+스팟 1명	15세 이상
	남녀혼성팀 파트너 스턴트			
Team Dance Cheer	Team Cheer Jazz	2분 30초	16 - 24명	14세 이상
	재즈 단체			
	Team Cheer Hip hop			
	힙합 단체			
댄스 치어 단체 종목	Team Cheer Freestyle Pom	2분 30초	2명	14세 이상
	펌 단체			
	Doubles Cheer Jazz			
	2인 재즈			
Doubles	Doubles Cheer Hip hop	1분 30초	2명	14세 이상
	2인 힙합			
	Doubles Cheer Freestyle Pom			
	2인 펌			
댄스 치어 2인 종목	Doubles Cheer Jazz	1분 30초	2명	14세 이상
	2인 재즈			
	Doubles Cheer Hip hop			
	2인 힙합			
댄스 치어 2인 종목	Doubles Cheer Freestyle Pom	1분 30초	2명	14세 이상
	2인 펌			
	Doubles Cheer Jazz			
	2인 재즈			

출처: [12], '국제대회 종목', [15]

현재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스턴트 치어의 파트너종목과 댄스 치어의 재즈부분을 제외한 8개의 세부종목이 경쟁부문으로 올라있다.

각 종목과 관련하여 심사규정을 알 수 있도록 대표종목에 한하여 국제심사시트를 [그림1]로 정리하였다.[12][15]

치어리딩은 2016년 IOC의 결정으로 3년간 인정단체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고, IOC로부터 매년 2,500달러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IOC의 각종 프로그램에 동참하며 ICU는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가기위한 완전승인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빠르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적어도 치어리딩 종주국인 미국이 개최국의 유리함을 살려 2028년 LA올림픽에서 치어리딩을 올림픽 종목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The image displays three official score sheets from the ICU World Cheerleading Championships. The first sheet is for the 'Coed Elite Division', the second for 'Team Cheer - Freestyle Pom', and the third for 'Doubles'. Each sheet is designed for judges to record scores across various performance categories. The categories include 'Overall Effect' (10 points), 'Cheer Criteria' (10 points), 'Partners Criteria' (10 points), 'Pyramid' (10 points), 'Routine' (10 points), 'Execution' (10 points), and 'Comments'. Each category has a corresponding point value and a checkbox for the judge to mark. The sheets are organized into columns for 'Judge No.', 'Team No.', and 'Team Name'.

[그림 1] 치어리딩 심사시트 (스텐트 단체혼성, 펌댄스 단체, 댄스더블)

[Fig. 1] cheerleading score sheet (stunt coed, team cheer-pom, double)

3.3 한국의 치어리딩

한국의 스포츠 치어리딩은 2000년대 외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1만 여 명의 동호인이 치어리딩을 즐기고 있고, 그 중 엘리트 선수로 활동하는 인원은 300명 정도로 추정된다. 극소수가 한국 치어리딩을 이끌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치어리딩은 세계적인 수준과 실력으로 발전해 왔다. 학교 내 클럽팀 수는 말할 것도 없이, 일반인으로 구성된 아마추어팀도 늘어나고 있다. 그와 함께 '치어리더'하면 떠올랐던 스포츠 구장의 미녀 직업군을 넘어서 '스포츠 치어리더'의 새로운 직업군이 형성되어 가고 있기도 하다.

치어리딩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실력 또한 상승하고 있다. 아마추어팀들이 엘리트팀의 실력을 위협하는가 하면, 초등팀들의 실력 또한 성인 치어리딩팀을 긴장하게 한다. 한국 치어리딩 국가대표팀은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선수권대회의 댄스 치어리딩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하였으며, 스텐트 치어리딩은 매년 성적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매해 빠짐없이 출전하고 있다. 전 세계 클럽팀이 참여하여 경연을 펼치는 세계 올스타 치어리딩 대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엘리트 클럽팀이 출전하여 금메달을 목에 건 사례도 있다. [표 3]에서는 해외에서 개최된 치어리딩 대회에 한국 국가대표팀 자력으로 참가하여 거둔 역대성적을 정리하였다. [표 3]은 역대 국가대표팀 감독 및 선수들의 인터뷰

를 통하여 조사된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3] 한국 치어리딩팀 해외대회 참가 역대 성적
[Table 3] Korea cheerleading Team International Competition grades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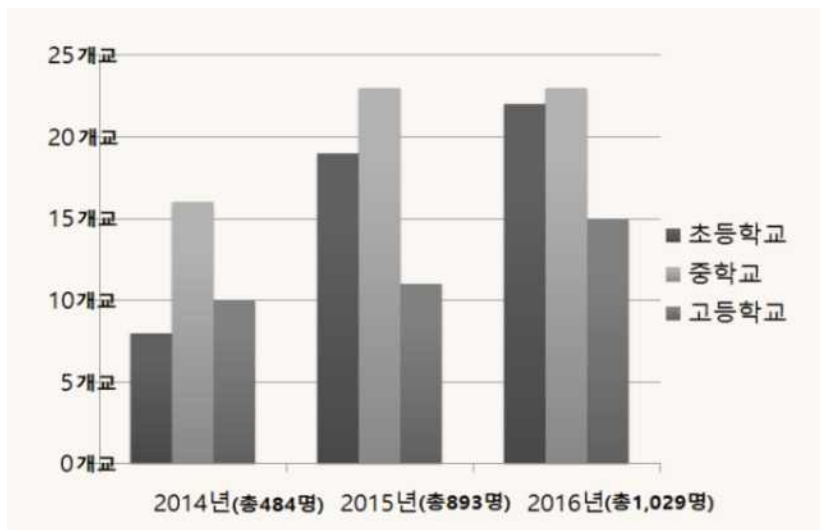
연도	명칭	성적	부문
스턴트 치어리딩 종목			
2011	ICU World Cheerleading Championship	11위	Coed Elite 혼성단체스턴트 레벨5
2012		7위	
2013		6위	
2014		7위	
2015		16위	
2016	세계선수권대회	10위	
2017		7위	
2012	ICU Asia Open Cheerleading Championship	동메달	Group Stunt 그룹스턴트
2013		금메달	Group Stunt 그룹스턴트
	아시아대회	은메달	Coed Elite 혼성단체스턴트 레벨5
2013	UCA Allstar Cheerleading Championship	금메달	Coed Premier 혼성단체스턴트레벨6
2014		금메달	
2015		은메달	
2016		은메달	
2017		은메달	
댄스 치어리딩 종목			
2010	ICU World Cheerleading Championship	동메달	Hiphop Duple 힙합더블
2011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Hiphop Duple 힙합더블
2012	University Worldcup Cheerleading Championship	은메달	Hiphop Dub 힙합더블
2013		동메달	Hiphop Duple 힙합더블
2013	세계대학선수권대회	동메달	Pom Duple 팜더블

출처: 전 국가대표 선수 및 감독 인터뷰, 기록자료

스턴트 종목의 경우 현재까지 꾸준히 해외대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댄스 종목의 경우는 현재 선수들의 부재로 지속적인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스톤트 종목의 경우에도 2015년 성적의 하락이 눈에 띄게 보여 지는데, 이 시기에 우수한 선수들이 경제적인 여건 등의 이유로 대회참여가 어려웠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전 국가대표 선수는 설명했다. 이후 다시 성적이 상승하게 된

원인은 치어리딩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우수한 기량의 선수들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전 국가대표 선수는 설명했다.

아마추어 치어리딩팀도 공교육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스포츠클럽리그전에 참가하는 초·중·고교 팀들의 기량은 매년 향상되고 있으며, 국내 굵직한 축제현장에서도 이제 치어리딩을 관람 할 수 있다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2014년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리그전을 통해 치어리딩 종목에 참가한 인원은 초·중·고교 전체 34개교 총 484명이었으나, 2015년 54개교 893명, 2016년 60개교 1,029명으로 2년 사이 약 2.5배가 증가했다.[10][13]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리그전에 치어리딩 종목으로 참가한 학교 수와 학생 수를 [그림 2]로 정리하였다.



[그림 2]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 종목 참여 현황

[Fig. 2] National School Sport Club cheerleading Participation Status

치어리딩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치어리딩 연맹에 가입한 국가만도 110개국에 달하며,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도 치어리딩을 건전한 스포츠로 즐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중·고교 및 대학을 포함하여 엘리트 클럽팀까지 청소년층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가 치어리딩을 즐길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팀들의 아이디어와 구상능력은 엘리트팀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치어리딩을 진로로 선택

하고 열정을 쏟는 청소년도 상당수에 이른다.

치어리딩이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학교 스포츠클럽을 통한 아마추어 팀의 성장과, 엘리트 클럽의 폭넓은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학교 스포츠클럽을 통해 초·중·고교 내 참여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치어리딩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 내 방과 후 활동 및 동아리 활동으로 치어리딩을 선택하면서 특기개발의 개념과 여가활동의 개념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치어리딩 참여는 한국 치어리딩의 양적 성장뿐 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동반상승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전까지 대학 치어리딩에 국한 되었던 한국 치어리딩은 참여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아지게 되었고, 중·고교팀의 작품소스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치어리딩 작품의 퀄리티도 점점 높아지게 되었다. 치어리딩을 통해 교외활동 및 교내 공연활동이 생겨나게 되면서 참여자의 재미요소도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청소년의 만족도 증가 및 결과물 창출은 불안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엘리트 클럽팀의 활동부분도 한국 치어리딩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미국식 스포츠 치어리딩이 한국에 유입되던 초기에는 엘리트 클럽팀의 수가 종목별 한 개 씩 뿐이었다. 그러나 점점 그 수가 늘어났다. 불과 5년 전만해도 손가락으로 팀 수를 꼽을 수 있을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5년 이내 많은 신생팀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각 지역별로 엘리트 치어리딩팀이 존재하는 수준이다. 엘리트 치어리딩팀은 해외대회 등에 참여하면서 한국 치어리딩의 대외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국내 공연활동을 통한 인지도상승 및 긍정적 이미지변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엘리트 치어리딩팀의 확대로 치어리딩에 대한 직업군이 형성되기도 하였고, 불안정한 시장에서 직업으로 치어리딩을 선택한 이들이 선두가 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치어리딩에 매진하며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한국의 치어리딩은 짧은 역사 안에서도 많은 결과물을 창출해 내었고, 지금도 스포츠 치어리더들은 한국 치어리딩의 인지도 확대 및 긍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기에 앞으로의 실력성장 및 한국 치어리딩의 발전 또한 기대해 볼 만 하다.

3.3 한국 치어리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스포츠 치어리딩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00년대 미국식 치어리딩이 유입되면서 시작된 한국의 스포츠 치어리딩은 손가락으로 팀 수를 꼽을 수 있을 만큼의 엘리트 클럽팀들이 선두하면서 질적 성장을 이끌어왔다. 엘리트 클럽팀들의 대외활동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학교

내 클럽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전에 치어리딩 종목으로 참가하는 학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열리는 치어리딩 대회도 개최 수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참가팀의 수준 또한 상승하고 있다.

신생팀의 대부분은 한국 고유의 액션 치어리딩 유경험자들이 선두에 있었다. 자신의 치어리딩 경험을 살려 치어리딩의 장점과 매력을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치어리딩의 경험연령대를 낮추기 시작하였으며, 치어리딩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을 바꾸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식 치어리딩의 유경험자들 또한 스포츠 치어리딩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부정적 선입견을 탈피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곳에서 스포츠 치어리딩을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공연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치어리딩이라는 장르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였고, 치어리딩을 관련한 일반인들에게 스포츠 구장 내 치어리더 외에 또 다른 치어리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연이라는 매개체는 학교 내 행사를 통하여 학교 클럽팀들의 활동결과물을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단순히 배우고 경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통하여 청소년의 부정적 잉여에너지 발산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긍정적인 심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학교와 학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치어리딩 프로그램은 선정적이지 않은 건전한 프로그램임과 동시에, 신체활동인 셈이다. 따라서 신체적 활동을 통한 정신건강 함양을 기대할 수 있음에 만족도가 높으며, 치어리딩 그 자체에 녹아있는 사회성 발달 부문에서도 필요성을 점차 인지하고 있다.

국내 학교 내 치어리딩 프로그램은 스포츠클럽, 스포츠 데이, 방과 후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유학기제, 예술강사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학교 내 프로그램 반영 수에 비하여 치어리딩 지도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치어리딩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 지도자들은 연초에 연간스케줄이 꽉 차버리는 실정이다. 그래서 학기중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의가 여러 건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건 등의 이유로 운영이 불가능하다. 학교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치어리딩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더라도 마땅한 지도자를 영입하지 못하여 치어리딩 프로그램 운영을 포기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치어리딩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상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의 여러 치어리딩 단체들은 지도자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치어리딩의 유경험자의 수가 많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수행이 동시에 가능한 전문지도자의 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치어리딩의 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의 운영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우려적인 측면에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스포츠종목이든 지도자 양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우수한 지도자가 존재할수록 종목의 발전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수한 지도자는 기술적인 측면 외에도 심리적 요소 등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한 수행경력 및 활동경험은 필수조건으로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현재 치어리딩 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은 몇 시간의 실기수업 등을 통하여 치어리딩 무경험자도 지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 수 있기도 하다.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도자로서는 몇 시간의 실기수업과 이론수업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난이도를 높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물론, 끊임없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와 수행을 실시하면서 우수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겠지만, 치어리딩 수행경험과 경험기간이 존재하는 지도자와의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의 여러 치어리딩 단체들은 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양성된 지도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더욱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현재 스포츠 치어리딩은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전이기 때문에, 세계선수권대회 등에 참가하는 한국선수들에게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금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엘리트 치어리딩 선수들은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자비를 들여 훈련하고 대회에 참여하는 등 한국 치어리딩의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식 치어리딩 선수는 한국식 치어리딩 경험자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 국내에서 활성화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선수로서의 활동이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이 되어 선수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우수한 치어리딩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위하여 해외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참여하는 선수 및 코치진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소수의 치어리딩 경험자가 한국의 치어리딩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단체 또는 사회적 기업의 지원 또한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선수육성 프로그램 및 지도자양성 프로그램 등에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치어리딩의 수준 또한 현재수준보다 더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선수육성 및 지도자 양성프로그램에 대한 우수프로그램도 현재는 미비한 상황이다. 미

국식 치어리딩이 한국으로 유입된 초기에는 외국 영상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터득하는 것이 전부였다. 지금의 아마추어 팀들은 기존의 우수한 선수 등의 지도로 인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기술을 수행하고 난이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지도자 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통하여 무작정 따라 하기식의 치어리딩을 하고 있는 팀들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치어리딩 체험캠프를 운영해보면 고난이도의 기술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본기가 전혀 다져지지 않아 위험요소와 불안요소가 넘쳐나는 아마추어 팀도 존재한다. 기초적인 용어 또는 이론적 내용조차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목적을 난이도 레벨 업에만 집중하는 팀들도 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기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찔하고 안타까운 순간이 포착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치어리딩의 기본적인 마인드 부족 및 위험요소와 안전요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려한 치어리딩의 모습만을 동경한 채 기술적요소의 수행에만 급급한 데 있다.

한국식 액션 치어리딩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미국식 치어리딩 중 스텐트 치어리딩은 안전의식이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부상의 위험이 따르는 스텐트 치어리딩은 치어리딩 전용 도구 사용 및 연령과 실력에 맞는 레벨 업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규정에 맞는 교육과 실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부상 없이 건전하고 안전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주축이 현존하는 선수들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들도 정확한 룰과 안전체계를 인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이론적인 용어부터 기술을 수행하는 방법까지 난이도별 프로그램이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치어리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반인들도 치어리딩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시해야만 한다. 또한 아마추어선수 및 엘리트 선수층까지 일반인을 비롯하여 선수들을 대상으로, 치어리딩이 하나의 스포츠로써 안전하게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국내 지원체계는 인지도와 인기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치어리딩의 올림픽 잠정종목 채택은 한국 치어리딩의 단체지원 및 국가적 지원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극한적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치어리딩의 수준 끌어올린 소수의 스포츠 치어리딩 선수들은 우수한 지도자 프로그램과 선수육성 프로그램에 더 매진하고 몰두하여 점진적인 한국 치어리딩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및 제언

세계의 치어리딩은 긴 역사 속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며 발전해 왔다. 치어리딩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종목의 세분화, 심사기준, 연령별 수행난도의 규제, 안전을 위한 의상변화 등 스포츠로서의 치어리딩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정확한 표현을 위한 지도자 프로그램, 일반인 모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 전 세계인이 동일하게 치어리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치어 마인드 등 사람을 위한 치어리딩 문화를 구축해 왔다. 그 결과 치어리딩은 곧 올림픽무대를 앞두고 있다. 물론 정식종목이 아닌 잠정종목이기 때문에 얼마나 올림픽 무대에서 치어리딩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전세계 치어리더들은 여전히 도전하고 있고 꿈꾸고 있다.

한국의 치어리딩 역사는 길다. 하지만 세계가 인정하는 스포츠로서의 치어리딩 역사는 짧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선진국형 치어리딩 수행능력은 뛰어나며, 그 결과 또한 화려하다. 이것은 현재 한국의 치어리딩을 이끌어가는 소수의 인원들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일반인들의 머릿속에 자리잡혀있는 '치어리더'라는 고정인식을 변화시키고 진짜 치어리딩을 알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멀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의 치어리딩은 스포츠가 아닌 공연의 형태이다. 직업으로 치어리딩 지도자를 선택한 성인남자는 부연설명이 필요하며, 불가능하게만 생각되는 손으로 사람들어올리기를 해내는 초인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많다.

한국 치어리딩의 기술적인 측면은 이미 앞서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을 이끌어온 한국 치어리딩의 주축들은 이제 많은 생각을 해야만 한다. 자신의 스포츠가 아닌 국가의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후배를 양성하고, 올바른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정확한 규정과 교육법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난도가 높아지고 세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것이 질적 성장만은 아니다. 스포츠 치어리딩이 무엇이며, 그것을 하기위해 어떠한 마음이 집으로 어떻게 수행해야하는지, 성장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무엇인지를 제시해야만 한다.

본 연구자는 한국 치어리딩의 기술적 성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방향성을 결과로 도출하였다.

첫째, 스포츠 치어리딩의 인지도향상을 위하여 스포츠 치어리딩의 공연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지도자와 수행자가 올바른 시선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치어리딩은 스포츠라는 인식개선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스포츠 치어리딩의 이론적 개념과 용어 및 규율적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다 할 교재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고전적 방식이 아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치어리딩에 대한 지식적 성장이 가능해 질 것이다.

셋째, 치어리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흥미와 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치어리딩을 경험하고자 하는 초보자들의 목적은 제각각이다. 누군가는 운동을 목적으로, 누군가는 화려함을 목적으로, 누군가는 진로로 치어리딩을 선택한다. 목적에 맞는 그리고 선택하는 이의 연령에 맞는 종목선택과 프로그램은 세분화되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치어리딩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교육을 담당하는 올바른 지도자가 양성되어야한다. 현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치어리딩 교육자는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각각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에서 개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활발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지만, 공교육 내의 치어리딩 교육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지도법에 대한 일관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지도자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수행자의 안전과 수준향상은 보장하기란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지도자 워크숍 또는 지도자 프로그램 등으로 균등한 교육이 실시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치어리딩에 대한 제도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는 여러 가지 절차와 이 유가 필요하겠지만, 아직 치어리딩에 대한 인지도와 인기도는 국가적 지원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올림픽 잠정종목으로 세계무대에서 치어리딩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앞 둔 이 시점에서 치어리딩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시급하다. 다양한 제도지원을 통하여 치어리딩의 기술적 성장을 위한 투자에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치어리딩은 스포츠다. 세계 스포츠기구를 통해 정식으로 인정받은 스포츠의 한 종목이며, 올림픽 잠정종목으로 채택된 진짜 스포츠이다. 한국의 치어리딩은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메이저 치어리딩 대회에 선수 개개인이 자비를 들여 참가 하면서도 지금까지 그 누구의 관심과 격려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치어리딩은 곳곳하게 성장해 왔으며 발전해 왔다. 그 결과 치어리딩 경험인구 확대, 치어리딩에 대한 수요급증, 치어리딩에 대한 인식변화, 치어리딩 수준의 세계화 등을 이루어 냈다.

이제부터 한국의 치어리딩은 다시 도약해야한다. 올림픽 잠정종목 채택이 구심점이 되어 한국의 스포츠 치어리딩 발전에 힘을 쏟아야만 한다. 10년의 짧은 역사라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급성장한 한국의 치어리딩의 저력을 올림픽 무대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im, Hyun-Sue and Kim, Dong-Kyu. (2013). Criteria and Process for the Selection of Olympic Sports and Relevant Sociophilosophical Issues,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21(4), 141-162.
- [2] Yoon, Yong-Jin. (2007). Globalization of Taekwondo as a Official Sport of Olympic Games. *The Korean Journal of Kumdo*, 23(1), 80-87.
- [3] Jeoung, Jae-Hwan and Park, Chan-Woo. (2016) A Study on Taekwondo Poomsae for National Sport Competitions Adoption,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4(4), 93-102.
- [4] Jeong, Kook-Hyun, Kim, Doo-Han, Kim, Ha-Young. (2014). The Strategies of Taekwondo for Olympic Regular Event.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3(3), 977-990.
- [5] Noh, Tong-Ho. (2017) The Cause and Solution Related to Failure of Wushu for Being Selected as an Olympic Sport, *Journal of Martial Arts*, 11(3), 1-22.
- [6] Ku, Beom Jun and Kim, Hak Duk. (2017) A Study on Taekwondo as the Permanent Official Olympic, *Journal of Martial Arts*. 11(2), 63-82.
- [7] Oh, Ji Yoon, Cho, Gwang Min and Kim, Hong Ryol. (2014) The Legal Review of the IOC's "Olympic" Designation Right,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19(4), 121-135.
- [8] Jiang, Yangwei. (2011) Study on the Adoption of Martial Arts and Taekwondo as the Olympic Sport, Honam University.
- [9] Kim, Sei Jong. (2017) A survey on Recognition on Golf Game as Official Event of 2016 Rio Olympics, Kyung Hee University.
- [10] Lee, Yeseul. (2017) The Study of Cheerleading History, Dongduk women's university.
- [11] Lee, Soo-Pan. (200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petition rules to maintain taekwondo as an official olympic game, Pusan National University.
- [12] <http://www.cheers.or.kr/>, Retrieved June 27, 2017.
- [13] <http://school-club.sport.or.kr/>, Retrieved: July 9, 2017.
- [14] <https://www.olympic.org/>, Retrieved September 28, 2017.
- [15] <http://cheerunion.org/>, Retrieved June 30, 2017.
- [16] <http://uca.varsity.com/>, Retrieved June 30, 2017.

- [17]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106059§ion=section26, Retrieved: July 5, 2017.
- [1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20701032930120002&mobile=false>, Retrieved August 15, 2017.
- [19] <http://terms.naver.com/>, keyword: cheerleading, olympic, Retrieved June 10, 2017.
- [20] <https://ko.wikipedia.org/wiki/>, keyword: cheerleading, olympic, Retrieved June 10, 2017.